

군사시설 통제 나주 금성산 정상 57년 만에 열린다

해발 451m 원도심 인근 명산...17일 노적봉서 개통식 공군 미사일방어여단과 협약 거쳐 585m 테크길 조성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부가 일반 시민들에게 57년 만에 상시 개방된다. 나주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금성산 노적봉에서 '금성산 정상부 등산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발 451m 높이의 금성산은 나주 원도심 지역에 있는 명산이다. 천혜의 생태 환경과 국립나주수목원, 생태 숲, 생태 물놀이장 등 산림휴양·여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사랑받아 왔다. 등산로가 개설되면 금성산 정상부인 노적봉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다.

금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 국가보안시설인 공군 방공포 부대 주둔 이후 매년 1월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왔다. 시민·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산이지만 등산의 묘미인 산 정상 등반이 불가능해 정상부 개방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산 정상부 개방을 위한 관·군 간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관·군은 협약 이후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등산로 노선, 매설 지리 제거 작업 등을 확정 짓고 같은 해 9월 등산로 개설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준공됐다. 낙타봉 인근 지점에서 출발해 노적봉에 도착하는 새로운 등산로는 길이 585m 테크길로 조성됐다. 산 정상부엔 군사시설 보안 유지를 위한 높이 2.5m, 길이 22m 차폐막을 설치했다. 개통식 날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타봉까지 차량 출입과 통행이 제한된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관·군 협력이 등산로 개설을 통해 마침내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이라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금성산이 시민과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나주의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군사시설에 막힌 나주 금성산 정상이 57년 만에 열린다.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전경. (나주시 제공)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 소상공인이 앞장선다

100여명 다짐대회·거리 캠페인

강진 소상공인들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 추진에 앞장선다. 강진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동삼) 회원들은 지난 6일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반값 강진 관광 성공 다짐대회'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군수가 참여해 격려했다. 캠페인은 강진군소상공인회, 강진상가번영회, 강진시장상인회, 외식업주회 등 100여 명이 강진읍중앙동에 모여 '2024 반값 강진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소상공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각 상인회 회장들이 나와 낭독하고 상인회 회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친절, 정결, 정갈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고 쓰인 미니현수막과 어깨띠를 매고 극장동에서 강진터미널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김동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반값 강진 관광의 해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마운 시책으로, 누구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강진원(가운데) 군수와 강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6일 반값다짐 선포 후 거리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직접 나서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며 친절, 정결, 정갈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4 반값 가족 여행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강진여행비용의

5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시책이다. 한 가족당 최대 5만원 이상 소비 시 2만 5000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꽃망울 터뜨린 홍매화.

강진청자축제 흥행 예고 홍매화 꽃망울 활짝

23일부터 3월3일까지 열려

오는 23일 개막하는 강진군 청자축제장에 봄소식을 전하는 홍매화가 활짝 피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23일부터 3월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진청자축제를 앞두고 봄의 정취를 더하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최근 내린 비와 비교적 포근한 기후 속에 지난해

5월 심은 홍매화가 귀한 자태를 드러내며 축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청자축제장에는 홍매화 200주를 심고 다양한 포토존도 조성했다. 임창복 강진군 산림과장은 "봄의 전령, 붉은 매화가 울며 축제장에 화사한 봄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매화 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가꾸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경찰 단계별 치밀한 교통관리 사고 없는 설 연휴 마무리

12일간 2단계 대책 수립 추진

화순경찰은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성객들이 안전한 설 연휴를 즐기도록 교통관리를 해 성과를 거뒀다. <사진> 화순은 주요 3개 국도를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내 7개 시군과 맞닿아 있어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다. 화순경찰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1단계 안전대책을 수립,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 장소 인근 혼잡교차로에 교통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 위주 활동에 주력했다. 또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단계로 본격적인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하는 차량의 교통 혼잡 지점을 분석, 기능성을 확보하고 주요 국도 진입·출입 등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큰 사고 없이 연휴를 마



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수신호 등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진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모습을 보여준 차량 운전자들에 감사의 전

하고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노력한 현장 경찰관의 노고에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에서 결혼하면 1000만원 드립니다"

"화순에서 결혼하면 1000만원을 드립니다." 화순군이 결혼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화순군이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은 전국 최대 금액인 부부당 1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조례 시행일인 지난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5년 동안 1000

만원을 분할로 지원받는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이나 배우자 국적 취득 후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뿐만 아니라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시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군 '치매안심택시' 사업비 추가 확보

영천택시와 서비스 업무협약

장성군이 올해 '치매안심택시'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운수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성군과 유한회사 영천택시는 최근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가정에서 치매안심센터나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택시 운행시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과 겹친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장성군은 더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앞으로 장성군은 치매안심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하고, 치매 관리 사각지



김한중(왼쪽) 장성군수와 정규우 영천택시 대표.

대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 서비스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농협-함평군, 전통시장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함평군은 최근 함평 전통시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장보기 운동을 펼쳤다. <사진> 이들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방문객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함평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다른 시·군과 교차 기부하고 온라인 명예의 전

당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화대전과 나비축제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썼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지역소멸 위기에 내가 가보고 싶은 농촌,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시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노인 백내장 수술 최대 30만원 지원

장성군이 올해도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으로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안(眼)당 15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500건, 7500만원 상당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했다. 수술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장성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주민은 수술 전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마늘·양파 농가 저온피해 예방 당부

함평군이 최근 마늘·양파 재배 지역에서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마늘과 양파 잎이 저온 피해를 입어 손상돼 세력이 약해지면 생육이 늦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잎이 갈변하기 시작한 마늘·양파 잎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노균병과 무름병 등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저온 피해를 입으면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증상과 함께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병 방제뿐만 아니라, 세력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 저온 피해로 잎 일부가 손상된 마늘·양파에는 겨울나기 뒤 질소질 비료나 복합비료를 뿌려줘야 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